

# 지스트 사회공헌단, 중학생 영재 진로멘토링 진행

- 19일(금)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중등영재원 학생 40명 지스트 방문
- 양자역학 특강부터 연구실 체험까지... 지스트에서 과학기술인의 꿈 키워



▲ 중등영재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사회공헌단이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 지역사회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중등영재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진로멘토링은 광주지역 중학생 영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찾고 이공계 분야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 중등영재교육원 중학교 1학년 과정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제공됐다.

지스트 물리·광학과 김근영 교수의 양자역학 특강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연구실을 비롯한 연구실 견학, 연구 데모 실습, 캠퍼스 투어 등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양자역학에 관한 물리 강의를 쉽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꿈꾸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학생들이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한 연구 데모를 체험하고 있다.

박래길 총장직무대행은 “지역의 과학 영재 학생들이 지스트에서 다양한 이공계 분야를 체험함으로써 잠재력을 계발하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 기쁘다”며, “**미래를 이끌 융합형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지스트는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캠프와 교육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 있는 체험형 이공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계획이다.